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수출 경기의 7대 이슈

목 차

■ 2018년 수출 경기의 7대 이슈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18년 수출 경기의 7대 이슈	2
3. 시사점	14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 백 다 미 연 구 위 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8년 수출 경기의 7대 이슈

■ 개요

국내 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은 수출의 힘으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 유력하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 내수 부문이 주목받고 있지만 소규모 개방 경제인 국내 특성상 올해도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국내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수출의 7가지 이슈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18년 수출 경기의 7대 이슈

① 세계 5대 수출 강국 도전

한국은 2018년 세계 5대 수출국 진입을 노릴 것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2016년 8위까지 하락했으나 2017년 6위로 복귀했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3.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 5위 네덜란드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세계 수출 5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8년 4.4%에서 2017년 4.0%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상승세에 있어 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차이는 2017년 0.4%p까지 줄어들었다.

② 신흥국 중심의 수출 외연 확대

2018년은 신흥국 중심의 수출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 IMF는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년(3.6%)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한다. 지역별로는 2018년은 신흥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4.9%로 2017년 4.6% 보다 0.3%p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57.4%로 선진국의 42.6% 보다 더 높다.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신흥국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은 총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다.

③ G2 무역 리스크의 상존

2018년에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들인 G2(미국, 중국) 무역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2017년에만 8건의 신규 수입규제조치가 제기되는 등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조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지고 수입규제조치가 추가적으로 제기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시장의 경우 사드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며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중간재 중심인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 특성상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은 국내 수출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④ 수출의 복병, 원화 강세

2018년 수출의 최대 복병으로 원화 강세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 강세다. 최근 원화 강세는 수출 측면에서 달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엔화에서도 동시 나타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원/100엔 환율이 연평균 1% 하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수출이 약 0.3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100엔 시나리오별로 기업 수출 감소율을 추정해 보면 원/100엔 환율이 2018년 연평균 950원을 기록할 경우 기업들의 수출은 연평균 1.9%, 900원일 경우 3.4% 감소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⑤ 유가 상승, 단기에 긍정적 그러나 중장기에 부정적

최근 OPEC 회원국들의 높은 감산 이행률, 원유 감산 연장,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유가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18년은 국제 원유 시장 초과 수요 진입으로 완만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초기에는 수출단가 인상효과로 기업들의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 **2017년 4분기 평균 국제 유가인 55.3달러 대비 1년 후 60달러로 오를 경우 수출은 0.19%, 80달러로 오를 경우 수출은 1.0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단가 인상은 수출물량 감소효과로 작용하여 수출 금액이 줄어든다. 실증분석 결과 국제 유가 상승은 5분기까지는 수출 증가 요인이지만 6분기 이후부터는 수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⑥ 반도체 수출 경기의 둔화 우려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2년 9.2%에서 2017년 17.1%로 늘어났다. 향후 반도체 수출 경기 향방은 국내 수출의 방향성에서 중요하다. 반도체 수출 사이클을 추정해 본 결과 반도체 경기는 호황 국면이 6분기 연속 진행되며 경

기 정점을 향해 가는 중이다. 과거 반도체 수출 호황국면은 평균 8.5분기까지 지속하였다. 반도체 수출 경기가 과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확장 국면은 2018년 2~3분기까지 진행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인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2018년에 정체될 것이다. 주요 전망 기관 역시 2018년 반도체 시장이 양호한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 경기는 2018년 상반기까지 호황을 유지하다 하반기부터 서서히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⑦ 떠오르는 8대 신산업

국내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8대 신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8대 신산업은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항공우주, 첨단신소재, 전기차, 로봇 등이다. 8대 신산업의 2017년 수출금액은 7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7.5%를 기록하며 전체 품목의 수출 증가율인 15.8%를 크게 넘어섰다. 8대 신산업 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수출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2012년 이후 수출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8대 신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장기적으로 내수중심, 소득주도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나, 2018년에도 경기회복세를 강화하여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성장경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수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려면 첫째, 5대 수출 강국 진입을 위해서 시장의 외연 확대 및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등 G2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예방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반도체 수출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는 8대 신산업이 안정적인 수출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1. 개요

○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2018년 국내 경제가 3%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동력으로 중요

- 2017년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나타나며 경제성장률이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

· 수출 확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확대, 기업 및 가계의 소득 증대 등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 견인

- 2018년에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소득주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 내수 부문이 주목받고 있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인 국내 특성상 수출의 역할은 매우 중요

- 다만 연초부터 수출 측면에서 원화 강세, 국제유가 불안, 반도체 편중 수출 구조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2018년에도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상존

○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 주목되는 국내 수출의 7대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 2018년 국내 수출의 7가지 이슈는 아래와 같음

· 국내 수출 전반의 이슈는 '세계 5대 수출 강국 도전', '신흥국 중심의 수출 외연 확대', 지역별 이슈로는 'G2 무역 리스크의 상존' 임

· 수출경쟁력 측면의 이슈로는 '수출의 복병, 원화 강세', '유가 상승, 단기에 긍정적 그러나 중장기에 부정적', 산업 측면 이슈로는 '반도체 수출 경기의 둔화 우려', '떠오르는 8대 신산업' 임

2. 2018년 수출 경기의 7대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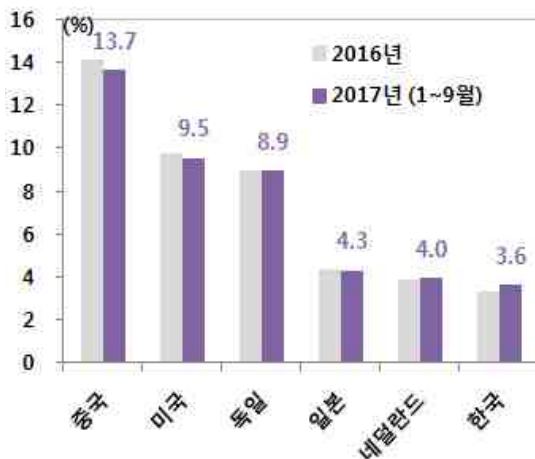
① 세계 5대 수출 강국 도전

○ 우리나라는 2018년 수출 세계 5위 강국으로의 도약에 나설것으로 기대

-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2016년 8위로 하락했으나 2017년 6위로 복귀
 -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2007년 11위, 2010년 7위에서 2015년 6위로 상승했으나, 2016년에는 8위로 하락
 - 그러나 2017년 1~9월 기준 한국은 홍콩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수출 6위 자리를 재탈환했으며, 시장점유율 역시 3.6%로 역대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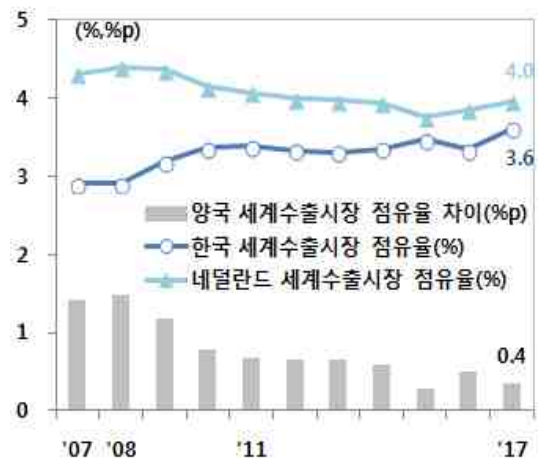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순위 5위인 네덜란드와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어 앞으로 네덜란드를 넘어 세계 수출 5위권 국가 진입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질 전망
 -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세계 수출 5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8년 4.4%에서 2017년 4.0%로 줄어드는 추세
 - 반면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양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차이는 2017년 0.4%p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수출 규모 세계 순위 >



자료 : WTO.
주 : 금액 기준.

<한국, 네덜란드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 WTO.
주 : 2017년은 1~9월 기준.

② 신흥국 중심의 수출 외연 확대

○ 2018년은 신흥국 중심의 수출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높는데, 최근 신흥국 경제의 부진으로 대신신흥국 수출이 대선진국 수출보다 부진
 - 2017년 1~11월 기준 한국의 대신신흥국 수출비중은 57.4%, 대선진국 수출비중은 42.6%로 신흥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 한국의 대신신흥국 수출비중은 2013년 59.5%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2~3년간 신흥국 경제가 부진하면서 57.4%까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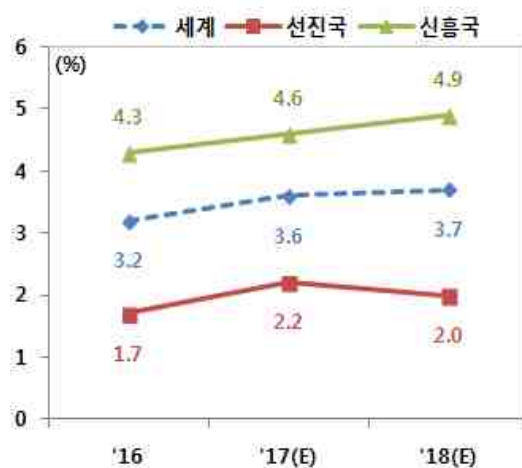
- 2018년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가운데,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한 3.7%로 예상
 - 이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해보면, 2018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년 대비 낮아진 반면 신흥국은 4.9%로 전년 대비 0.3%p 높아질 전망

< 한국의 경제권별 수출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7년은 1~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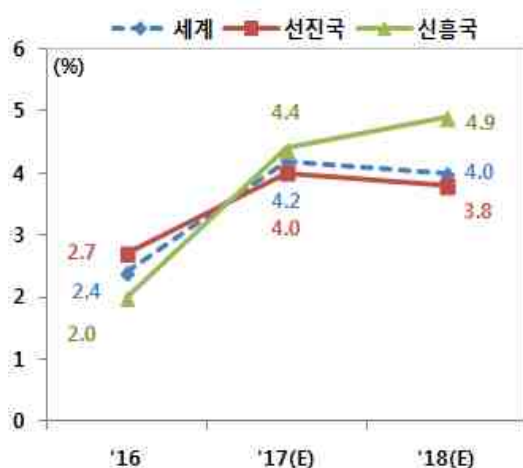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주 : 2017년 10월 전망 기준.

- 신흥국의 경제 성장으로 2018년 세계 교역 역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수출 견인에 도움이 될 전망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교역량은 전년대비 0.2%p 하락한 4.0%로 예상
 - 이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해보면, 2018년 선진국의 수입량은 3.8%로 전년의 4.0% 대비 0.2%p 줄어들 전망
 - 반면, 신흥국의 2018년 수입량은 4.9%로 전년의 4.4% 대비 0.5%p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8년에도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겠지만 한국의 수출물량증가율 사이클,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2018년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보다는 다소 둔화할 전망
 - 2016년 이후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율 사이클(3개월 이동평균 기준)은 약 6개월의 상승기와 2~3개월의 하락기로 구성
 - 2017년 11월 기준 한국의 수출물량 상승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분석되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수입물량 증가율 역시 정체 혹은 하락하는 모습
 - 이에 따라 2018년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전년보다는 다소 둔화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전망

< 세계 교역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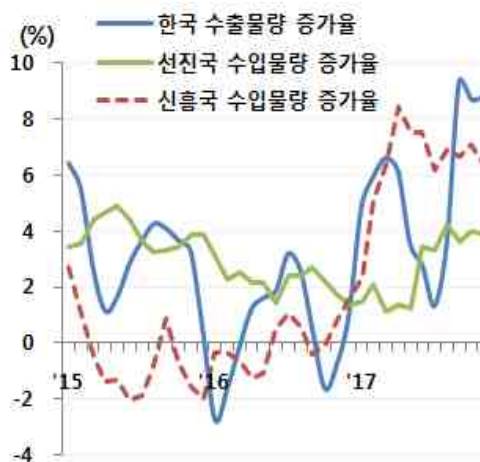


자료 : IMF.

주1) 2017년 10월 전망 기준.

주2) 세계는 교역량 기준. 선진국과 신흥국은 수입량 기준.

< 한국 수출물량 및 세계 수입물량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CPB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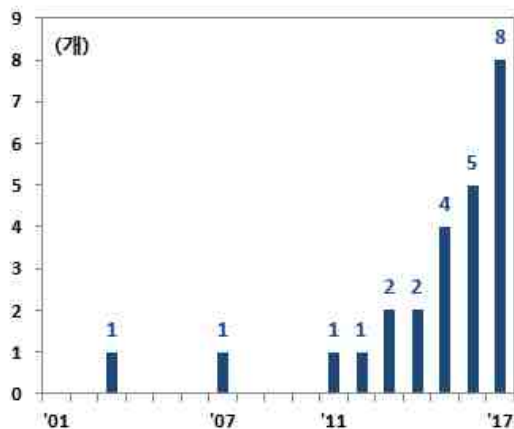
주 : 3개월 이동평균 기준.

③ G2 무역 리스크의 상존

○ 2018년에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들인 G2(미국, 중국) 무역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

- 2017년 한국의 대중국, 대미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한국의 G2 수출 비중이 하락
 - 2017년 1~11월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4.1%, 대미국 수출증가율은 4.3%로 총수출증가율 16.5%를 하회
 -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0.7%p 하락한 24.4%, 한국의 대미국 수출 비중은 전년대비 -1.4%p 하락한 12.1%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G2 수출 비중도 2016년 38.5%에서 36.5%로 하락
- 2017년 신규로 제기되어 조사중인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지고 추가적인 조치가 제기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하락 압력으로 작용
 - 미국이 최근 10년간 한국에 부과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24건인데, 그중 약 70%인 17건이 최근 3년간 부과된 조치이며 특히 2017년에만 8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되어 미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 2017년 신규로 조사 개시된 8개의 품목에서 실제로 수입규제조치가 이루어지거나 2018년에 새로운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미 수출 하방 압력

<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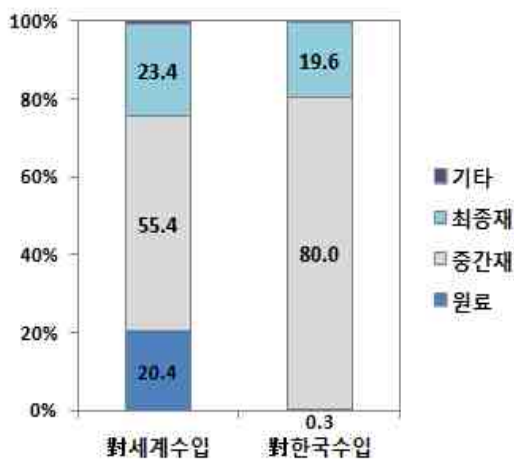
<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현재 조사중인 품목) >

번호	품목명	조사내용	분류
1	탄소합금강선재	반덤핑	철강
2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철강
3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세이프가드	전자전기
4	합성단섬유	반덤핑	섬유
5	세탁기	세이프가드	전자전기
6	저융점 폴리에스터	반덤핑	섬유
7	원추 롤러 베어링	반덤핑	기계
8	PET 레진	반덤핑	화학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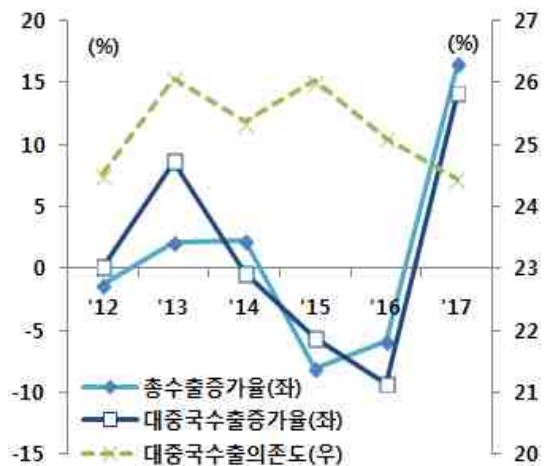
- 또한 2018년 1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이 자국의 무역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에 들어설 전망
 -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및 수입 기준 완화, 농축산물 추가 개방,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
 - 한국은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해소,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등을 요구할 가능성
- 중국의 경우 기존 사드 리스크는 해소되었으나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위험 요인이 상존
 -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며 중간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줄어들고 있음
- 중간재 중심인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 특성상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은 국내 수출을 둔화시킬 우려
 - 중국의 수입 품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최종재 55.4%, 중간재 23.4%, 원료 20.4%로 구성
 - 그러나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중간재 비중이 80.0%로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음

< 중국의 재화형태별 수입구조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UN Comtrade 이용).
 주1) 2016년 기준.
 주2) BEC 기준.

<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및 수출의존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7년은 1~11월 기준.

④ 수출의 복병, 원화 강세

○ 원화 절상은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수출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기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연결

- 최근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 강세 움직임

-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까지 하락하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1,050원이 위협받고 있음
- 한국과 주요 수출시장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 대비 원화 강세가 급격하여 원/100엔 환율은 2015년 6월 이후 900원 하회 가능성 증대
- 양호한 국내 경제 펀더멘털, 경상수지 흑자 지속,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로 인한 미시적 대응 어려움 등으로 2018년 원화 강세가 지속할 가능성 높음

-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주요국 대비 원화는 고평가되는 움직임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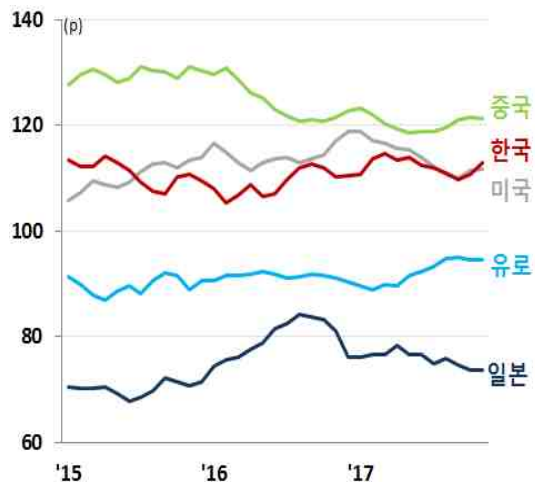
- 원화는 2017년 9월 이후 환율이 고평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통계의 가장 최근 월인 11월 이후에는 더욱 고평가되었을 가능성
- 달러화와 위안화 경우 다소 고평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최근에는 다소 회복하는 모습
- 유로화와 엔화의 경우 환율이 저평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임

< 원/달러, 원/100엔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실질실효환율 추이 >



자료 :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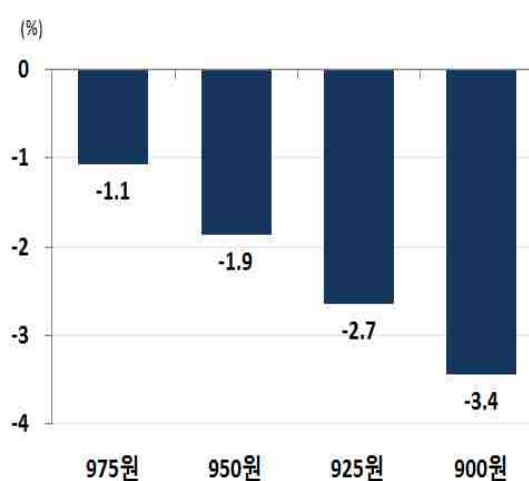
- 환율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를 통해 나타남
 - 원화의 절상은 원화 표시 수출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줄어드는 물량효과로 이어짐
- 최근 원화 강세는 수출 측면에서 달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엔화에서도 동시 나타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
 - 국내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원/100엔 환율 하락 시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 효과가 큼
- 원/100엔 환율이 연평균 1% 하락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약 0.3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¹⁾
 -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의 원/100엔 환율 민감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원/100엔 환율이 2018년 연평균 950원을 기록할 경우 기업들의 수출은 연평균 1.9%, 900원일 경우 수출은 3.4% 줄어들 전망

< 원/100엔 1% 하락 시 기업 수출 감소 >

		원/100엔 1% 하락
전체		0.32% ↓
산업 구분	제조업	0.36% ↓
	서비스업	0.20%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원/100엔 시나리오별 기업 수출 감소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시나리오별 원/100엔 값은 2018년 연평균 기준.

1) 자세한 분석 방법은 부록을 참조.

⑤ 유가 상승, 단기에 긍정적 그러나 중장기에 부정적

○ 유가 상승은 초기에는 수출이 늘어나는 데 도움을 주지만 6분기 이후부터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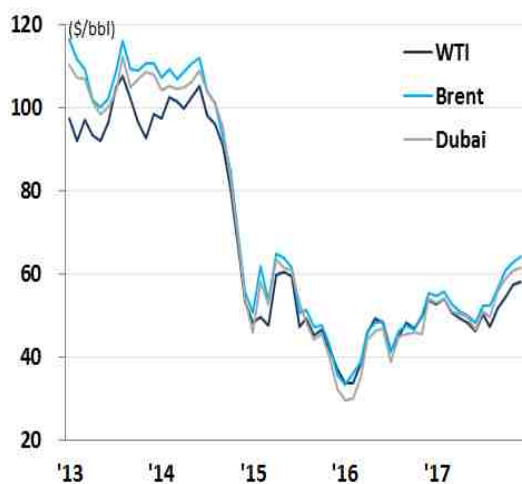
- 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 지속

- 2015년 글로벌 경기 둔화, 세일오일 공급증가, OPEC의 감산 합의 이행률 저조 등으로 국제 유가는 30달러 수준까지 하락
- 2016년 이후 원유 수요 회복, 원유 감산합의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최근 OPEC 회원국들의 높은 감산 이행률, 원유 감산 연장,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오름세

- 2018년은 국제 원유 시장 초과 수요 진입으로 완만한 상승 기조 예상

- 2018년 국제 원유 시장은 세계 원유 수요 증가율이 전년대비 소폭 둔화하겠지만, OPEC의 공급 조절 노력이 효과를 볼 경우 하반기 초과 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 IEA에 따르면 2015~2016년간 국제 원유시장은 초과 공급이었으나 2018년 하반기에 초과수요 상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 국제 유가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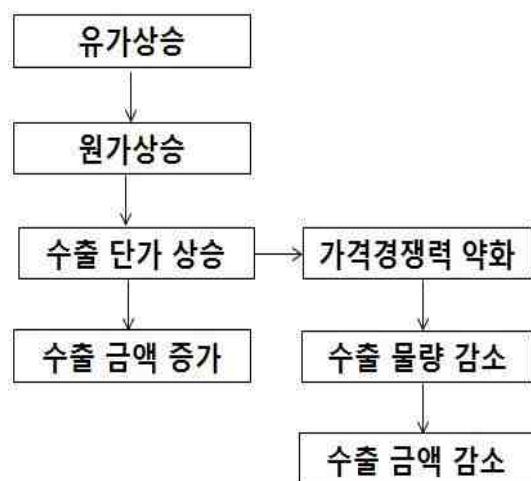
< 국제 원유 수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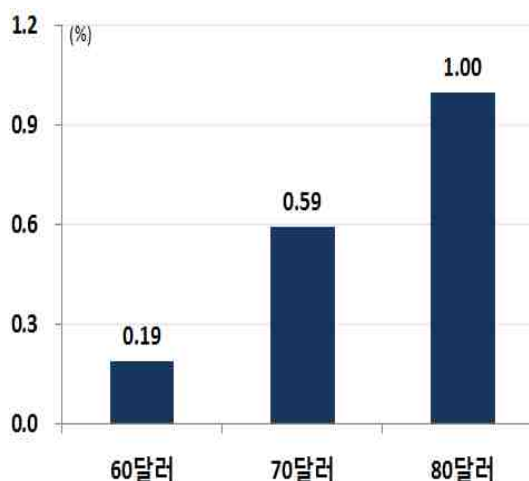
자료 : IEA, 현대경제연구원.

-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2)
 -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생산원가가 늘어나므로 수출 단가를 올리고 단기적으로 수출금액 측면에서 증가하는 요인
 - 수출 단가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수출금액이 줄어드는 요인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평균 국제 유가(WTI기준 달러)인 55.3달러 대비 1년 후 국제 유가가 60달러로 오를 경우 수출은 0.19%, 80달러로 오를 경우 수출은 1.00% 증가 예상
 - 다만 국제 유가 상승 후 5분기까지는 수출 증가 요인이지만 6분기 이후부터는 수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제조원가 중 석유제품 원가 비중이 높고 국제 경쟁도가 높은 산업들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유가 상승의 수출 파급경로 >



<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7), “국제 유가 상승의 한국 경제 파급 효과” 인용.

주1) 유가상승 4분기 후의 영향.

주2) 2017년 4분기 평균 유가 대비 시나리오별 상승률 통해 계산됨.

2) 현대경제연구원(2017), “국제 유가 상승의 한국 경제 파급 효과” 인용.

⑥ 반도체 수출 경기의 둔화 우려

○ 반도체 수출 경기는 2018년 상반기까지 호황을 지속하다 하반기부터 점차 둔화할 가능성

- 2017년 연간 반도체 수출은 979.4억 달러로 전체 수출 중 17.1%를 차지
 - 메모리 수요 증가로 반도체는 2017년 전년대비 57.4% 증가
 - 반도체 수출 금액은 2017년 연간 기준으로 약 97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연간 900억 달러를 넘어섬
 -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5년 11.9%, 2016년 12.6%에서 2017년 17.1%로 급증

- 반도체 수출의 급증은 가격 상승효과와 물량 증가 효과 모두 동시에 큰 폭으로 확대
 - 2017년(1~11월) 반도체 수출증감률인 57.5% 중 가격요인은 약 25.0%p 물량요인은 약 32.5%p를 차지
 - 지난 5년간 반도체 공급과잉, 경쟁 심화 등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컸으나 2017년 들어 수요 증가와 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름
 - 실제 D램 현물가격은 2017년 전년대비 89.9% 상승하였으면 낸드(NAND) 현물가격은 49.1% 오름

< 반도체 수출 금액 및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 >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반도체 수출 증가율의 가격·물량 요인 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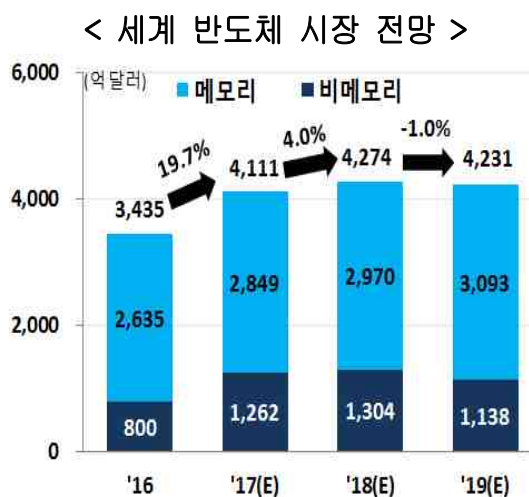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 반도체 수출 사이클³⁾을 추정해 본 결과 반도체 경기는 확장 국면이 지속 중
 - 2016년 2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수출 상승 확장 국면(경기 저점→경기정점)은 현재 6분기 연속 진행되며 경기 정점으로 향해 가는 중
 - 2000년 이후 반도체 수출 경기는 평균 8.5분기까지 확장국면이 이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반도체 수출 경기가 과거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확장국면은 2018년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진행될 가능성
 - 반도체 산업의 전방산업인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2018년에 정체될 것으로 보임⁴⁾
- 반도체 전망 기관들은 2018년에도 반도체 시장이 양호한 성장을 하겠지만 확장 폭은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6년 3,435억 달러에서 2017년 4,111억 달러로 19.7% 성장
 - 글로벌 IT 자문기관인 Gartner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18년에 전년 대비 약 4% 늘어난 4,274억 달러로 전망하며 2019년에는 -1.0% 역성장 예상
-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018년 상반기까지 호황을 유지하다 하반기부터 서서히 둔화할 가능성
 - 2018년에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겠지만 시장의 성장은 전년에 미치지 못함
 - 반도체 공급 역시 늘어 수출 증가율 중 가격요인 상승 폭이 제한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수출 금액을 계절조정 한 후 BP filter 방식으로 반도체 수출 사이클을 추출.



자료 : Gartner.

3) 조상섭, 조은진(2002), “우리나라 IT Cycle에 관한 분석”의 방법 참고.

4) 현대경제연구원(2017),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⑦ 떠오르는 8대 신산업

○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8대 신산업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름

- 8대 신산업⁵⁾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 8대 신산업의 2017년 수출금액은 73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5%⁶⁾ 증가하며 전체 품목의 수출 증가율인 15.8%를 크게 넘어섬

- 8대 신산업 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수출이 두각

· 8대 신산업의 품목별 수출 비중은 차세대 반도체(61.4%), 차세대 디스플레이(12.5%), 에너지신산업(9.2%), 바이오헬스(6.0%)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전기자동차(1.2%)의 경우 수출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2012년 이후 수출이 급증하는 모습

-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8대 신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7년 1~3분기 기준.

5) 8대 신산업은 ① 차세대반도체, ② 차세대디스플레이, ③ 바이오헬스, ④ 에너지신산업(2차전자·태양광·스마트미터), ⑤ 항공우주, ⑥ 첨단신소재, ⑦ 전기차, ⑧ 로봇 등임.

6) 8대 신산업 수출 증가율 계산 시 태양광은 제외.

3. 시사점

첫째, 5대 수출 강국 진입을 위해서 시장의 외연 확대 및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2017년 수출이 급성장한 베트남, 호주, 인도, 러시아와 같이 2018년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확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 발굴 및 공략 강화
-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혁신 등 중장기적인 노력도 지속

둘째,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 등 G2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미국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2018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 채널 강화, 불공정·차별적 무역 행위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 한·미FTA 재협상에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중국 시장은 부품 및 중간재 품목의 첨단기술화·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생산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시장 발굴로 중국 수출의 무게 중심을 소비재 시장으로 이동

셋째, 원화의 급격한 강세를 예방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 원화의 급격한 강세가 나타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 기업들의 수출 둔화 등에 대비
 -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화 움직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지양
 - 다만 원화가 급격한 강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일부 기업들은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환시장 미세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정성 예방
 - 수출 비중이 큰 중소기업은 여타 기업들과 외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환위험 관리방안 및 외환 컨설팅 등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

- 환 헤지 세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적절한 운영과 제도적 강화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여나가야 함

넷째, 반도체 수출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특정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올해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주력 수출품목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
 - 수출 구조가 편중될 경우 특정 품목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이 커짐
 -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경기 둔화는 자칫 국내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 지속으로 반도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
 - 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수출 호황 국면에 속해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 불안요인이 많음

다섯째,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는 8대 신산업이 안정적인 수출동력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 세계 경제 수요 확대,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8대 신산업 품목의 수출 시장을 중국, 아세안 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 EU 등으로 다변화
 - 품목 측면에서는 현재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된 8대 신산업 수출 구조를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항공우주 등 여러 분야로 다각화할 필요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
백다미 연구위원 (2072-6239, dm100@hri.co.kr)

< 부록 > 원/100엔 환율 변동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원/100엔 환율 변동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Dynamic GM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분석모형은 동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
 -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Arellano-Bond의 Dynamic GMM 모형을 사용
 - 분석모형은 이홍식(2012)7)의 수출 함수를 참조
 - 종속변수는 기업의 수출금액이며 주된 관심이 있는 독립변수는 원/100엔 환율, 주요 통제변수는 글로벌 수입수요를 나타내는 세계경제성장률과 종속변수의 과거값 등을 사용

$$y_{it} = \alpha + \gamma y_{it-1} + \beta x_{it} + u_i + e_{it}$$

- 자료는 KISVALUE의 외감기업 비금융업인 27,897개 기업 중 수출 실적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금융업의 경우 여타 산업들과 특성이 매우 상이하므로 수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함
 -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연간 자료임
- 실증분석결과 전체 기업의 경우 원/100엔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수출금액은 0.3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원/100엔 환율이 1% 하락 시 수출금액이 0.327%, 서비스업은 0.2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

	ln(수출금액)		
	(1) 전체	(2) 제조업	(3) 서비스업
ln(원/100엔 환율)	0.32094*** (0.04147)	0.35660*** (0.04500)	0.20146** (0.09943)

주1) ***는 유의수준 1% 이내, **는 유의수준 5% 이내를 의미.

2) 괄호안은 표준오차 값을 의미.

7) 이홍식(2012), “우리나라 수출의 파급효과와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